

“내 평생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광주 5·18”

선종 10주기맞은 김수환 추기경과 광주의 인연

김수환(1922-2009년 2월 16일·사진)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과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증인이자 5·18항쟁 때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전두환에 맞선 김 추기경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김 추기경과 광주의 인연을 소개하는 기념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1980년 5월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현 5·18기록관) 6층 집무실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윤공희 대주교는 급히 상경해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났다.

광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김 추기경은 다음날 서울 궁정동 안가로 전두환을 찾아간다. 당시 전씨가 실권자라는 사실은 일부만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김 추기경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 추기경은 전두환에게 “유혈사태를 지속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전화기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국방부가 전씨에게 광주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전화였다. 김 추기경은 상황이 급박해진다느니 느낌을 받았지만 전씨는 1시간 동안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급기야 전씨는 방커로 가야 한다며 방을 나가버리며 면담은 지속되

80년 5월 20일 전두환 찾아가 계엄군 과격진압 자제 등 요청

81년 내란음모사건 판결편 피고인 가족 명동성당 보호

84년 방한 교황 금남로 안내 5·18 세계 만방에 알리기도

지 않았다. 일부 5·18연구자들은 김 추기경의 방문에 부담감을 느낀 전씨가 일부러 부하들에게 전화를 계속 걸라고 지시해 면담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추기경은 생전 인터뷰에서 “전씨가 ‘광주에서 내란이 벌어졌다’며 갑자기 나가버리자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답답함을 느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고 회상했다.

1980년 5월 21일 김 추기경은 교황청 대사를 통해 글라이스틴 미국대사를 만나 광주 상황 해결을 촉구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났다. 이 사령관은 김 추기경에게 “시위대가 북쪽으로 오지 않는 한 관장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있었지만 이 사령관은 김 추기경을 속인 것이다.



이후 광주의 참상을 전해들은 김 추기경은 군중 신부를 통해 윤공희 대주교에게 광주 상황을 우려하는 서신과 당시로서는 큰돈인 현금 1000만원을 부쳤다. 이 돈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맡겨져 부상자 치료와 구속자 영치금 등으로 쓰였다.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12명에 대해 사형 등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을 지켜보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뿌렸고 곧 경찰이 들이닥쳤다. 가족들은 지하묘지로 피신했고, 다음날 김 추기경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주교관으로 이꼴었다. 이후 가족들

은 추기경의 보호 아래 농성에 들어갔고, 이 사이 윤공희 대주교는 전두환을 만나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 피고인들은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지난 1984년 5월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광주 금남로를 방문한 배경도 김 추기경의 부탁이 있었던 알려졌다.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교황은 청와대 경호실에 금남로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교황에게 광주를 보여주지 싶었던 전두환 정권은 저격 위협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방탄차를 공수, 금남로 퍼레이드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김 추기경의 메시지를 받은 교황이 금남로에서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02년 김 추기경을 인터뷰한 김양래 5·18재단 이사는 “당시 김 추기경님은 5·18에 대해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가장 마음 아팠던 일로 5·18을 꼽으셨다”며 “5·18 이후에도 서울에서 시위를 한 5월 가족들을 보살피는 등 광주에 애정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6일부터 김 추기경과 광주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9 달뜨기 13:29
해질 18:14 달지기 03:03

주말 낮 기온 포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주	구름많음	-3/8	보성	구름많음	-5/8
목포	구름많음	-2/4	순천	구름많음	-2/11
여수	구름많음	2/10	영광	구름많음	-5/5
나주	구름많음	-5/8	진도	구름많음	-2/5
완도	구름많음	-1/8	전주	구름많음	-2/6
구례	구름많음	-4/9	군산	구름많음	-3/4
강진	구름많음	-4/8	남원	구름많음	-4/7
해남	구름많음	-5/6	축산도	구름많음	1/6
장성	구름많음	-5/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서~북	1.0~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30	09:56
15:52	22:04	
여수	11:35	05:23
23:47	17:38	

◇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0/5	-3/7	-2/8	2/9	2/11	2/12	2/12

◇ 생활지수

	높음
	높음
	보통
	미세먼지

“기본으로 돌아가 사법 신뢰 회복하자”

박병철 광주지법원장 취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사법 이념의 본질이 현실 재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병철(61·사법연수원 17기·사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4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법원장은 “법원을 찾는 당사자 대부분은 삶의 평화를 잃은 분들이고 존엄한 인격체임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상처와 불안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박지법원장은 또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적,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법원 가족들과 자

주 만나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법원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 출신인 박 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광주지법 해남·목포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서해어업관리단 3~5월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해 연안에서의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어업단은 실뱀장어 본격 포획 시 기인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

속한다. 단속에 앞서 관할지역 실뱀장어 어업인을 상대로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정월대보름 오곡밥 사랑 나눔 14일 광주시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앞 마당에서 정월대보름(19일)을 앞두고 열린 ‘부럼깨고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한 ‘농성2동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저소득 가정에게 나눠줄 오곡밥과 나물 등 도시락을 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北측 공동행사 긍정적 반응”

광주시교육청의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공동행사’ 등 남북교육 교류제안에 북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측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여 결과를 보고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13일 양철식 북측 남북민족화해협의회 부위원장, 조선교육문화 직업동맹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6가지 남북 교육교류를 제안했다.

항일 학생 독립운동 자료 교환·공동 조사, 평양 역사문화 견학단 파견,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초청등이다.

장 교육감은 “직접 북측 민회협 고위관계자, 교육단체 대표와 마주 앉아 남북교육 교류사업의 제안하고 그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이번 방북의 성과”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대용량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사(ACS) 가중치 5.0 배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신산업지원 4개 단행(신재생·전력·전차·제약)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